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2012년 10월 24일(수) · 10월 25일(목)

10:00~13:00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

고려청자의 세계

윤 용 이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본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의는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의 5분전 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강의 시작 이후부터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는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으며, 강의 도중 강의실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3) 추가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교육마당](#)→[교육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강의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
고려청자의 세계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140-026)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295 · 9310 FAX / (02)2077-9300

www.museum.go.kr

인 쇄 (주) 계 문 사 / (02)725-5216

고려청자의 세계

윤 용 이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도기에서 자기로의 발전은 매우 큰 변화이다. 도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제작 할 수 있는 자기장인과 그 제작에 직접 필요한 재료인 점토·유약 그리고 가마시설 등의 기반이 마련된 속에서 가능하였다. 우리는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고화도의 경질도기로서 녹유라는 도기를 제작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청자·백자 등의 자기는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려도자가 제작되게 된 것일까?

고려의 새로운 지배세력과 도당유학생·선승들은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 이미 중국문물에 익숙해 있었으며 중국문물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미 통일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부터 당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문물의 하나인 도자에 대하여 널리 알고 있었고, 이 시기의 유적인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안압지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월주요산 청자완, 형주요산 백자완, 장사요산 황유호편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고려의 새로운 지배세력의 중국문물에 대한 요구는 처음 해로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나 10세기후반 광종(950~975)과 성종(982~997)년간을 통해 중앙집권화정책의 추진과 이에 따른 중국의 문물제도가 크게 받아들여진다. 고려는 958년 귀화하였던 중국인 쌍기의 진언에 따라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하고,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며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 성종년간은 최승로를 중용하고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중앙귀족국가의 기반을 확립하고,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10세기 후반의 이러한 고려의 신지배층은 불교발달에 따른 선종의 전파와 그에 따른 다도에 필요한 다기인 도자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처음 중국 五代로부터 수입된 도자기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었지만 차츰 신지배층 확대에 따라 수입된 도자기만으로는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중국의 귀화인들과 중국문물에 익숙한 고려 지식인들의 제언에 따라 그들의 엄청난 수요 충족을 위한 중국도자와 닮은 고려도자의 제작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의 비색청자로 유명한 오월국과의 교류는 새로운 도자제작을 열망하는 고려 신지배층의 요구로 오월국으로부터 중국 자기장들이 도래했고, 그들에게 고려 도기장들이 청자의 제작기술을 배웠다.

특히 1987·1988년에 2·3차 발굴조사 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 요지의 최하층에서 발견된 퇴적층은 오대·북송 초인 10세기 중반경에 비교되며, 중국에서 널리 제작되던 벽돌가마에 양질의 청자제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소위 햇무리굽의 청자완 가마들보다도 앞서 만들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어 고려도자의 기원이 10세기 후반에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예로는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순화4년명(993)청자호> 1점이 고려태묘에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 10세기 후반의 청자제작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1세기 전반경의 도자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1983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청자요지로 청자편들과 <태평임술2년명(1022) 청자와편>이 함께 발견되어 그 제작시기를 알려준 자료들이다. 이들 중 햇무리굽청자완들의 직구된 몸체와 넓고 낮은 굽의 모습은 중국의 당·오대의 월주요산 청자완이나 형주요산 백자완에서 보이는 것으로 차를 담는데 쓰는 다완으로 짐작된다. 이는 고려불교의 넓은 전파에 따라 선의 수행방법으로 성행된 좌선 때에 정신을 맑게 하는 차를 담는 그릇으로 9~10세기경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와 닮은 청자완 요구의 확대 속에 11세기 전반 도자의 특징으로 다완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특히 강진 대구면 일대에는 햇무리굽청자완을 제작하던 소규모의 청자요지들이 50여개소에서 발견되고 있어 점차 고려도자의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11세기 전반의 도자 모습은 11세기 후반 문종년간(1047~1082)까지 지속되며,

문종 후년(1070년대)부터 새로이 북송과의 교류에서 받아들인 중국도자의 기형과 문양이 고려도자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북방청자에 보이는 압출양각의 수법과 광주 서촌요·자주요 등에 보이는 철화의 국당초문·모란문 등의 수법이 고려도자에 보이고 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요지군과 인천 경서동요지,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진서리요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요지, 강지군 대구면 용운리·계율리요지군 등 전국으로 수많은 요가 확산되어 활발하게 제작활동을 시작하여, 햇무리굽청자를 비롯해서 약간의 음각연판문·양각연판문·철화초문·모란문·철백화점문 등의 평저접시류와 주전자·광구병·호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또한 1085년경의 것으로 추정된 경기도 양평군 매원리고분 출토의 청자병과 청자철채백화선문침 등은 암록색의 청자에 철채·백화기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즉 11세기 후반의 고려는 청자의 제작이 활발해져서 전국에 수많은 요가 설치되었으며, 강진·부안의 양질청자와 해남·인천 등의 조질청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것이 양질청자였다면 지방의 관청·사찰·토호들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것이 조질청자였음이 1983·84년에 발굴·조사된 완도해저 출토의 도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들 양질 및 조질의 청자들은 기형과 문양·제작수법 등이 대체로 공통적이며 이러한 양상은 12세기 전반까지 그대로 발전되었다.

12세기 전반은 11세기 후반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고려의 귀족정치가 예종·인종 연간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며 고려문화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석포리고분에서 <청자음각봉황문완>과 <청자양각초문완> 이 정화통보(1111~1117)와 함께 출토되어 1117년경에 가는 음각의 봉황문이 시문된 완과 압출양각의 초문 완의 예로 11세기 후반의 도자 모습이 이 시기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24년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과 1146년에 작고한 인종의 장릉 출토 일괄청자들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1123년경 고려청자의 제작솜씨가 교묘해지고 그 빛깔이 아름다우며, 월주고비색이나 여주신요기와 비슷하고 기형이 중국의 일정한 그릇형태를 모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1123년의 고려청자의 색이 담청록색으로 월주청자의 색과 닮았고, 기형은 여관요산과 닮음을 지적하고 있어 여요산의 병·탁자·접시의 기형이 당시의 고려청자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46년 인종 장릉 출토의 <청자과형화병> <청자합> <청자방형대> 등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정제된 기형에 문양은 드물고, 굽다리에 내화반침과 규석반침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12세기초보다는 12세기 중반경에 들어와 고려비색청자의 명품이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후반의 의종과 명종시기는 고려귀족사회의 절정기이며 몰락기였고 전화의 시기였다. 의종의 사치스러움과 1170년의 무신의 난으로 고려귀족사회의 지배세력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며 이러한 모습이 점차 고려도자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도자로는 『고려사』 세가 의종 11년(1157)의 청자기와의 기록과 강진 사당리요에서 발굴된 일괄청자들로 이들 청자기와 편의 문양기법과 유약을 현존하는 청자들과 비교하면 수많은 음각청자·양각청자·투각청자·상감청자·동화청자·철화청자 등이 이 시기에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현재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던 많은 순청자들이 이 청자와의 가까운 1157년 전후에 제작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감청자의 초보적인 기법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상감청자의 시작과 발전은 1170년 이후의 명종시기와 관련 있었음이 1202년에 작고한 명종 지릉에서 나온 <청자상감여지문대접>·접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의종년간의 도자기법으로 음각·양각·투각·상형기법이 능숙하게 널리 쓰였으며, 그에 따라 철채·철화·동채·백화 기법이 골고루 쓰이면서 백자·흑자·도기 등의 기형이 다양해진다. 또한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의 투각 기교, 상형의 다양한 모습, 맑고 은은한 비색유에 철사·동사 등의 안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던 고려청자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상감청자의 발전은 청자의 주류를 순청자에서 상감청자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세기 전반의 1170년 무신의 난 이후 문인들의 잦은 정권교체는 1196년 최충헌에 의해 안정되어지고 최우·최항·최의에 이르는 62년간의 최씨정권을 맞이한다. 또한 1231년부터는 몽고의 침입이 계속된 시기여서 고려의 문화는 12세기와 달리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남송과의 국교단절로 인한 문화의 자극이 없어지자 그로 인한 고려도자 특유의 기형과 문양이 발달되어 고려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1202년에 작고한 명종의 지릉 출토의 청자상감여지문대접, 음각·양각의 접시, 청자타구 등과 이 시기 전후로 추정되는 전 문공유묘 출토의 청자상감보상화문완과 접시들은 한층 맑고 투명해진 청자유, 내·외면에 꼭차게 포치된 시문, 동일한 규석받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청자로 추정되는 부안 유천리요산 고려도지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기형과 문양들은 12세기 후반 도자의 예를 포함하여 12세기 전 시기에 걸쳐 나온다. 대체로 각종 투각과 상감기법, 그외 철채·동채·철백화·철화 등이 시문되고, 문양의 경우도 다양해지며 유색은 녹색이 짙은 청자유와 투명한 청자유가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벽은 두꺼워져 가고 있고, 굽다리의 규석받침도 커져가고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거나 큰 기형에는 점토가 섞인 모래받침으로 구운 매병·병의 예가 많아진다.

이처럼 기형과 문양에서 중국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고려적인 기형과 문양이 확대되어 가는 이 시기 도자의 특징은 간송 소장의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국박 소장의 <청자상감포도동자문동채주자 및 승반>이 대표적인 예의 청자이다.

원종과 충렬왕 시기의 13세기 후반은 100여년 간의 무신정권의 붕괴와 몽고와의 화의 성립, 그에 반대하는 삼별초의 1270~73년까지의 항쟁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그 이후 몽고의 간섭 하에 들어간 고려는 1274·1281년 일본원정에 참여하며, 1275년부터는 원(몽고)의 강요에 따라 전반적인 중앙관제의 개정과 특히 원의 경제적 수탈과 몽고식의 습속·언어가 강요되었다. 그중 원의 세력에 배경을 둔 권문세족에 의한 고려의 신지배층의 성장은 고려도자에 있어서 원대 도자의 기형·문양이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257년에 작고한 최항의 묘지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청자양각연판문동채표형주자>는 짙은 녹색의 청자유와 점토가 섞인 내화토 받침으로 받쳐 구운 것으로 기벽은 두껍고 비례는 적정하다. 또한 『고려사』의 기록 중 1289~97년경에 화금청자를 원의 세조에게 선물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개성 만월대 궁지에서 발견된 <청자상감원숭이토끼문화금편호>가 가장 부합된다. 능형의 문양대를 구획한 것과 편호의 기형, 양면에 보상당초 등의 새로운 문양과 담청색 유약, 두꺼운 기벽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편호류가 유행하고 있었음을 준다. 따라서 1290년 전후로 고려도자는 원대 도자의 기형과 문양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또한 충렬왕의 사치와 유락으로 화금청자 등 특이한 도자가 제작되어진다.

12·13세기 고려도자의 제작은 자기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별공의 공물로 국가에 수납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에는 자기소가 설치되어 소민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토착세력인 소리에 의해 강진은 장홍창, 부안은 안홍창에 모여져 조운에 의해 해로로 개성에 올려 보내져서 왕실과 관청·귀족소용의 도자로 사용되었다. 특히 강진 대구면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해 대구소가 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 자기소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4세기 전반 원의 세력에 배경을 둔 권문세족은 고려후기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높은 관직과 광대한 농장을 소유한 대토지소유자였다. 고려와 원과의 관계는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원의 의복·변발·혼인을 통해 깊어갔고, 성리학의 수용과 불교(라마교)가 받아들여지면서 불화의 제작과 사경 제작이 유행한다. 이 시기 고려도자에도 원 도자가의 기형과 문양이 널리 반영되기 시작한다. 주로 원의 청화백자에서 보이는 쌍봉문·보상당초문·파도문·어문 등이 나타나며 철유가 시유된 철유자기·흑자 등의 원의 기호에 맞는 도자가 제작된다. 기형은 매병류가 줄어들고 측면이 편평한 광구호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간지명청자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다.

공민왕·우왕의 14세기 후반은 격동의 시기로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인 신흥사대부가 등장한다. 이들은 권문세족의 권력독점과 경제장악에 대한 개혁정치를 주장했으며 주로 지방의 향리 출신들로 점차 중·소지주로 성장하면서 과거를 통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게 된다. 공민왕 때에 그들의 개혁정치를 추진해갔으며 결국 신흥무인들의 협력으로 조선왕조를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도자는 40년간의 극심한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에 신흥사대부들은 그들의 이념인 성리학의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그들은 유기 대신 칠기·목기를 전용하라는 『고려사』의 기록처럼 실생활에 널리 쓰임이 있는 실용적인 그릇의 다량생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때마침 왜구의 침략으로 강진·부안의 해안가의 가마들이 파괴되고 해로를 통한 조운이 막히자 전국 내륙지방 곳곳에 가마가 설치되는 전환을 맞이하는데 이는

1424년에서 1432년에 조사되어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324개소에 달하는 도자소의 가마들이다.

이 시기 도자 중 1350년대의 <청자상감유연문매병>을 보면 암록색으로 유색이 변하며 유면 또한 거친데 이와 같은 14세기 후반의 매병은 15세기 전반 분청사기의 모체가 된다. 1391년 백자발의 경우 기형에 있어 15세기 백자발의 원형을 보여주고 것으로, 14세기 말에 경질의 백자가 존재했다는 점과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가 거친 태토 위에 시유된 조선초기의 백자와 비슷하여 명대 도자의 영향에 따른 경질백자가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4세기 후반은 중국에 있어 원에서 명으로 바뀌어가듯이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전환되어가는 변화기로, 도자에 있어서도 실생활화의 촉진에 따른 수많은 실용적인 도자의 제작과 왜구의 침입으로 폐쇄된 강진·부안요를 대신한 내륙지방의 가마들의 대량생산의 기반 조성은 이후 15세기 전반의 세종연간의 도자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비록 14세기 후반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였음에도 도자에 있어 실생활화가 촉진된 새로운 전환의 시기였음을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도자 양상은 곧 이은 조선 분청자와 백자의 모체가 되었다.

【저 서】

- 『우리 옛 질그릇』, 대원사, 2012.
 『아름다운 우리 찻그릇』, 이른아침, 2011.
 『우리 옛 도자기』, 대원사, 2010.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돌베개, 200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1997.
 『한국 도자사 연구』, 문예출판사, 1993.
 (공저),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Note

【 2012년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

“국립중앙박물관 올해의 특별전시 산책”

- 은하박물관학교 : 2012년 3월 28일(수)~12월 5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박물관문화대학 : 2012년 3월 29일(목)~12월 6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강의 주제

연번	일 자		강의 주제	특별전시 일정
	은하학교	박물관대학		
1	3. 28(수)	3. 29(목)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연계 강좌Ⅰ “신라의 우물과 제사”(김현희, 국립중앙박물관)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 (3. 20-5. 6)
2	4. 4(수)	4. 5(목)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연계 강좌Ⅱ “백제 왕성의 어정(御井)과 물의 제사”(권오영, 한신대)	
4. 11(수)~4. 12(목) 휴강 / 4. 11 선거일				
3	4. 18(수)	4. 19(목)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연계 강좌Ⅲ “동아시아의 우물”(김광연, 인하대 명예교수)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 (3. 20-5. 6)
4	4. 25(수)	4. 26(목)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연계 강좌Ⅳ “경주박물관 내 신라우물의 미스터리”(이한상, 대전대)	
5	5. 2(수)	5. 3(목)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 연계 강좌Ⅴ “불교문화재 발굴과 그 의미”(최태선, 중앙승가대)	
6	5. 9(수)	5. 10(목)	테마전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 연계 강좌 “나무에 담긴 이야기”(윤종균,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 (3. 27-7. 1)
7	5. 16(수)	5. 17(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Ⅰ “터키문명전 : 이스탄불의 황제들”(김세원, 국립중앙박물관)	이스탄불의 황제들 (5. 1-9. 2)
8	5. 23(수)	5. 24(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Ⅱ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이스탄불”(후세인 이지트, 이스탄불문화원장)	
9	5. 30(수)	5. 31(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Ⅲ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 영광과 좌절의 역사”(진원숙, 계명대 명예교수)	
6. 6(수)~6. 7(목) 휴강 / 6. 6 현충일				
10	6. 13(수)	6. 14(목)	특별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연계 강좌Ⅰ “미국 박물관에서의 한국미술 소장품 전시”(신소연, 국립중앙박물관)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6. 5-8. 5)
11	6. 20(수)	6. 21(목)	특별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연계 강좌Ⅱ “한국의 나전칠기”(황지현, 국립전주박물관)	
12	6. 27(수)	6. 28(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Ⅳ “오스만 고전기 건축”(서정일, 서울대)	이스탄불의 황제들 (5. 1-9. 2)
13	7. 4(수)	7. 5(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Ⅴ “비잔틴미술과 성상파괴운동”(박배형, 서울대)	
14	7. 11(수)	7. 12(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Ⅵ “터키문명전과 이슬람 문화”(이희수, 한양대)	
15	7. 18(수)	7. 19(목)	기획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연계 강좌Ⅶ “오르한 파묵과 이스탄불 그리고 <순수박물관>”(이난아, 한국외대)	

【 2012년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 · 박물관문화대학 】

“국립중앙박물관 올해의 특별전시 산책”

- 은하박물관학교 : 2012년 3월 28일(수)~12월 5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박물관문화대학 : 2012년 3월 29일(목)~12월 6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강의 주제

연번	일 자		강의 주제	특별전시 일정
	은하학교	박물관대학		
16	7. 25(수)	7. 26(목)	테마전 ‘길상,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 연계 강좌Ⅰ “길상,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박해훈, 국립중앙박물관)	길상,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 (7. 24~9. 9)
17	8. 1(수)	8. 2(목)	테마전 ‘길상,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 연계 강좌Ⅱ “전통 미술 속의 길상과 상서”(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18	8. 8(수)	8. 9(목)	테마전 ‘길상, 중국 미술에 담긴 행복의 염원’ 연계 강좌Ⅲ “조선후기 백자에 나타난 길상문”(방병선, 고려대)	
8. 15(수)~9. 6(목) 휴강 / 8. 15 광복절 및 휴가기간, 박물관 시설점검기간(8. 27~9. 9)				
19	9. 12(수)		특별전 ‘마야 2012’ 연계 강좌Ⅰ “마야의 시간과 사회”(양성혁, 국립중앙박물관)	마야 2012 (9. 4~10. 28)
20	9. 19(수)	9. 20(목)	특별전 ‘마야 2012’ 연계 강좌Ⅱ “희생의례 통해 본 마야사회”(정해주, 부산외국어대 중남미지역원)	
21	9. 26(수)	9. 27(목)	특별전 ‘마야 2012’ 연계 강좌Ⅲ “아스떼카 문명의 실체와 허구”(이종득, 덕성여대)	
		10. 4(목)	특별전 ‘마야 2012’ 연계 강좌Ⅰ “마야의 시간과 사회”(양성혁, 국립중앙박물관)	
22	10. 10(수)	10. 11(목)	특별전 ‘마야 2012’ 연계 강좌Ⅳ “멕시코 문화와 축제”(김세건, 강원대)	
23	10. 17(수)	10. 18(목)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Ⅰ “천하제일 비색청자”(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천하제일의 비색청자 (10. 16~12. 16)
24	10. 24(수)	10. 25(목)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Ⅱ “고려청자의 세계”(윤용이, 명지대학교)	
25	10. 31(수)	11. 1(목)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Ⅲ	
26	11. 7(수)	11. 8(목)	기획전 ‘천하제일 비색청자’ 연계 강좌Ⅳ	
27	11. 14(수)	11. 15(목)	테마전 ‘실학자, 정약용’ 연계 강좌Ⅰ	실학자, 정약용 (10. 30~12. 16)
28	11. 21(수)	11. 22(목)	테마전 ‘실학자, 정약용’ 연계 강좌Ⅱ	
29	11. 28(수)	11. 29(목)	테마전 ‘실학자, 정약용’ 연계 강좌Ⅲ	
30	12. 5(수)	12. 6(목)	테마전 ‘실학자, 정약용’ 연계 강좌Ⅳ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